

류전윈(劉震雲) 신사실주의 소설에서 권력과 공간

— 《우두머리 頭人》를 중심으로

李賢馥

<목 차>

1. 들어가며
2. 공간의 정치적 함의
3. 중국 현대의 국가, 정치, 공간
4. 마을의 정치적 함의
5. 공간-관계의 새로운 정의
6. 나가며

1. 들어가며

김시준은 新寫實主義, 특히 新寫實小說을 “대부분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번뇌와 욕망 등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남이 보기에는 별로 대단한 사건이 아니나 당사자인 그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다. 작가는 이들의 하찮게 보이는 사건들을 객관적인 눈으로 사실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평범한 인간들의 삶에서 공유하는 인생의 참뜻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있어 삶이란 무엇인지를 계시하여 준다”¹⁾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신사실주의는 전통 소설의 소재인 才子佳人的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인물들의 삶의 단편을 통해 현실 사회의 문제를

1) 김시준, 《중국 당대문학사》(서울: 소명출판, 2005), p.527.

폭로하고 인생의 제 문제를 보여주고자 했던 초기 중국현대문학의 사실주의적 경향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실제 신사실주의 작품의 인물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요구하던 영웅적 인물이나 계급의 전형적 인물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며, 작품은 이러한 사람들이 겪는 평범한 삶의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중국 현대문학은 전근대적 문화와 관습을 비판하고 인성의 자연스런 표현²⁾을 중시했는데, 신사실주의 역시 평범한 인간의 삶, 심리와 욕구, 본성 등을 직접적으로 표출한다는 데서 현대문학의 사실주의적, 인도주의적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류전윈(劉震雲)은 신사실주의 경향의 작가로서 80년대 후반부터 신사실주의로 평가 받는 《塔鋪》, 《新兵連》, 《頭人》, 《單位》, 《一地鷄毛》, 《官人》 등의 중단편 작품들을 통해 전형적인 영웅적 인물을 그리기 보다는 평범한 인물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였으며, 권력이나 역사와 같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인간 외부의 문제를 폭로하고 이와 호응하는 인간 본연의 문제에 접근해 들어갔다.

당대문학 연구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 류전윈에 대한 연구는 폭이 제한적이었다. 석사 논문으로 《류전윈(劉震雲) 도시 소설의 인물형상 연구: 현대 도시인의 '욕망'과 '좌절' 심리를 중심으로》(朴敏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가 있으며 그 외 소논문으로 <류전윈(劉震雲)의 《핸드폰(手機)》에 나타난 '장치', '주체', 그리고 '욕망'의 관계>(朴敏鎬, 《중국어문학논집》제66호, 2011), <이상 상실의 시대, 일상화·세속화 주체의 발전: 류전윈(劉震雲) 신사실주의 소설 속 '샤오린(小林)' 인물형상의 경우>(李永求, 朴敏鎬, 《中國學研究》제53집, 2010), <류전윈(劉震雲) 신사실주의 소설에 나타난 아이러니 irony 연구: '직장소설 職場小說'과 '공직사회소설 관계소설'을 중심으로>(李永求, 朴敏鎬, 《외국문학연구》제39호, 2010), <과국의 형상학: 1980년대 후반 중국소설에 나타난 '인간의 죽음': 팡팡(方方), <풍경(風景)>, 츠리(池莉), <번뇌인생(煩惱人生)>, 류전윈, <단위(單位)> 등 신사

2) 홍석표, 《중국현대문학사》(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9), p.83.

실주의 소설을 중심으로>(朴敏鎬, 《韓中言語文化研究》제24집, 2010) 등이 있다. 국내 연구들 대부분은 인간 외부의 사회적 장치와 함께 인간 개인의 욕망의 문제를 다루거나 이와 관련된 작품의 아이러니와 풍자적 수법 등의 서사적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연구는 한국 보다 다양한 편이지만 그의 작품에 담긴 ‘권력’을 소재로 한 연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앞의 박민호의 석사논문에서는 중국의 연구 특징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권력’의 문제에 집중한 연구는 대개 류전윈 문학의 권력에 대한 ‘비판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향’이라는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 연구물들은 류전윈의 ‘고향’ 모티프가 ‘역사’와 관련성이 짙고, 또한 ‘역사’와 관련된 제목들은 역사가 작가에게 있어 주관적, 해체주의적 재고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苦痛’, ‘困惑’, ‘絕望’ 등의 부정적 개념을 부각시키고 있는 논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개념들이 작가의 창작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띠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³⁾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외부에서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과 그 아래의 나약한 인간과 인간성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전개한다.

중국에서의 연구들은 류전윈의 “권력”이 인간 삶에 불가분한 것으로 드러남을 강조한다. 인간의 생존과 발전은 예외 없이 권력의 수립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⁴⁾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인간의 문화와 문화의식 속에 깊이 박혀서 인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비판은 그러한 권력 자체 보다는 이를 문화 혹은 문화의식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류전윈의 소설에서 권력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뿌리를 두고 자라나오며 권력의식은 인간의 무의식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고, 권력현상은 공공의 공간과 사적인 영역에까지 젖어든다.⁵⁾ 또한 그의 작품에서 권력은 인간의 의식의 차원에서

3) 朴敏鎬 《류전윈(劉震雲) 도시 소설의 인물형상 연구 - 현대 도시인의 ‘욕망’과 ‘좌절’ 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8, p.8

4) 李海燕, <論劉震雲前中期小說中的權力批判意識>, 《安徽文學》第6期, 2008, p.7.

5) 董文桃, 陳純潔, <論劉震雲官場系列小說的“權力”特徵>, 《汕頭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25卷第5期, 2009, p.44.

문화적 무의식으로 남아 인간의 영혼을 침식하고 물리적인 생명과 정신적 생명을 굶아 먹는다.⁶⁾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전근대적인 官本位, 權力本位の 문화는 인간의 전근대성과 연결되며 자연스럽게 “국민성 비판”과 연결시켜 비판되기도 한다.⁷⁾ 무엇보다 권력이 전근대적인 문화의식으로 여전히 잔존할 있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욕망과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류전원의 작품 곳곳에서 권력은 오만한 모습을 보이며 인간의 사욕과 연관되어 보통의 민중으로 하여금 권력을 경외하게 만든다.⁸⁾ 개체는 권력 지향의 본성을 갖고 있으며, 권력의 쟁탈을 통해 기본적인 물질적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⁹⁾ 이렇게 그의 작품에서는 중국 현대문학 초기의 비판적인 사실주의 경향의 작품처럼 전근대적 관습과 인간의 본성과 연관된 권력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사회의 낙후된 면모가 폭로되고 있다. 혹자는 이것이 지식인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여전히 우매하고 전근대적인 의식 속에서 현실의 관습과 관본위, 권력본위의 문화에 굴복하여 우매하고 낙후된 삶을 살아가는 世情을 폭로함으로써 지식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우매와는 다른 良知를 갖추고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권력과 그것이 반영되는 사회적 양태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각 개인들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며 자신의 가치를 훼손당한다. 꿈과 이상은 사라져 버리고 도덕과 양심을 잃어버린다. 그들은 외부에 굴복해 소시민이 되어 버리고 만다. 역사 역시 그렇다. 그의 작품에서 역사는 역사유물론이 기대하듯 내적인 동력의 추동 하에 합목적적으로 발전하지도 않으며 이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합목적적인 인간도 등장하지 않는다. 역사는 권력과 연계되어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 뿐이다. 권력 아래에서 역

6) 劉漪瀾, 陳春風, <劉震雲小說中權力文化的批判>, 《短篇小說》第19期, 2009, p.77.

7) 段廷良, 郭偉, <略論劉震雲小說的權力批判意識>, 《開封教育學院學報》제22권제4기, 2002, p.28 참조.

8) 馮慶華, 《劉震雲小說論》, 南京大學博士論文, 2013, p.57.

9) 같은 책, p.87.

10) 齊志偉, <虛無荒誕下的自我存在>, 《文學界》第10期, 2012 참조.

사를 만들어 가는 위대한 인민대중은 없으며, 인물들은 자신의 순수한 신념을 잃어버린 채 조여 오는 생계에 굴복하고, 권력을 위한 제도에 아부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분석에서 본다면 권력은 인간 개체가 욕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획득할 수 없으며, 인간 개체 자신에게 속한 속성이면서도 개체에게서 궁극적으로 실현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개체는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런데 류전윈은 사회 내에 처해 있는 인간 개체와 권력의 관계를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연구자들, 특히 대륙의 연구자들은 이를 사회와 개체와의 구체적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정해진 답에 의해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전윈의 권력 비판이 분명 당대사회의 전근대적인 관습과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자들, 특히 대륙의 연구자들은 현실적 한계로 인해 이를 문화비판의 영역에서만 다루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렇게 권력의 문제를 문화비판의 틀로 한정하게 되면서 권력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과의 연관성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회적 문제의 근원은 중국민족이나 인민에게 고유한 본성으로 한정되며 드러나는 문제들도 개개인의 인성적 차원에서만 설명되고 해결의 모색도 인성적 차원으로만 축소되고 만다. 관본위 혹은 권력본위의 의식과 관습은 전근대적 문화로 객관화, 추상화되어 버림으로써 권력과 사회가 왜 현재에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가 하는 이면의 모습들은 논의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신사실주의를 계몽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주의'에만 주목함으로써 신사실주의를 사회의 불량한 관습에 대한 비판으로 규정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앞의 김시준의 분석처럼 신사실주의는 현대문학 연구자들에게는 하나의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것이 판에 박은 반복일 수는 없다. 청말 민초부터 5.4의 신문화운동까지 진행된 개혁운동은 문화 운동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개혁 추진 세력들은 이를 통해 전통 문화를 전근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과학과 이성을 통해 새로운 도덕적, 문명적 기준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중국 민족의 생존의 위기 앞에 그들 자신을 세계 속에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고유한 것을 열등한 문화와

본성으로 규정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었다던 것이다. 그들의 생존과 발전을 방해하는 전근대적인 문화와 관습은 폐기하고 이를 대체해 새로운 문명과 도덕은 서구로부터 들여오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한 고민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사실주의, 특히 류전원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의 현실은 분명 이와 달랐다. 과거와 같은 민족 존망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중국에는 이미 강력한 중앙집중화된 권력을 가진 국가가 존재했다. 외세의 위협과 내부 정치 개혁의 실패와 같은 정치적 좌절을 겪으며 신문화운동과 같은 문화방면의 개혁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던 1910년대와 달리 권력을 장악한 이들은 피통치자들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통합시키기 위한 새로운 문화와 관습의 내면화를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했었다. 그리고 신사실주의가 모습을 드러낸 그 전야에 장기간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적 문화 정책 하에 단절되었던 지난 중국현대문학과 문화의 고민은 다시 부활하기도 했다.

쉬지린(許紀霖) 등은 1970년대 말 시작된 사상해방을 거친 후 나타난 1980년대 중후기의 당대 사상의 흐름을 신계몽운동으로 이야기했다. 그들은 이를 위로는 70년대 말에 시작된 사상해방운동을 이어받고 아래로는 90년대까지 이르렀던 중국의 또 하나의 5·4로 보았다. 정치개혁에 초점을 맞췄던 사상해방운동에 비해 신계몽은 '문화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신계몽은 '서구식 현대화'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서구와 같은 걸음으로 가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구 사조를 전통에 대응하는 현대의 담론으로 이해하며 이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¹¹⁾ 시기적으로 본다면 1986년부터 시작된 신사실주의 경향의 창작 태도와 작품은 이러한 신계몽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들도 계몽적 관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거의 현실과 동시 진행된 신사실주의적 고민과 실천이 당대를 보다 객관적

11) 許紀霖 외 저, 이주노 외 역, 《계몽의 자아와해》(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총론 참조.

으로 바라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과 교감하는 작가의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문혁 이후 약 10여 년의 변화와 새로운 모색에 대한 비판의 표출로서 이를 바라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류전윈의 경우 그가 작품을 발표한 시기는 1989, 90년으로서 이는 1980년대 중국지식인들의 사상적 고민의 결과와 현실의 정치적 변화가 작품 속에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분명 신시기 이후 유지되어온 개혁(이것조차 가치적인데)이 하나의 전환점을 맞는 시기였다. 1980년대의 정치사회적 개혁의 시도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든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서 천안문사태가 터져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시기는 이후 중국의 발전 방향과도 연관되어 쉬지런 등이 주장한 90년대 계몽의 분열, 즉 자아와해로 이어지는 데에 있어 과도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류전윈의 권력의 문제를 계몽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이를 전근대적 의식에 대한 비판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미묘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신사실주의와 류전윈의 작업은 그의 현재에 나타난 전근대성 이면에서 그것을 야기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까지 함께 살펴볼 때 의미가 있다. 류전윈의 작품에서 정치와 권력은 인간의 외부에서 개개 생활을 억압하는 장치로 다가온다. 그의 작품에서의 권력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정치 문화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現當代 중국에서의 정치가 서구적 민주정치 체제와는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근대적이라 지칭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을 때 권력과 정치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 물론 류전윈의 작품에서 官本位라 지칭할 수 있는 조악한 문화의식과 관습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그것을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에서 찾는 것은 전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계몽적인 의미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근대성이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류전윈이 제기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신사실주의에 “新”이라는 접두사가 붙는 것은 분명 “사실주의”와는 다른 의지와 실천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권력’과 ‘정치’의 연관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은 본래 정치와 떨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정치는 다양한 세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행위이면서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실현할 권력의 획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이를 전근대적 권력승배의식과 같은 문화의식과 이에 굴복하는 인간과 그 본성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려 하는데 그 출발점을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에서 찾고자 한다.

권력 문제와 관련된 작품들은 인간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본다면 어찌면 앞서 언급한 작품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인물들은 그를 둘러싼 외형적 힘에 고민하고 굴복하는데 어느 하나 권력과 떨어진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중 필자의 문제의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우두머리 頭人》¹²⁾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촌장으로 대변되는 권력자와 피통치자인 인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 더해 검토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공간으로서 마을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은 마을이 탄생부터 시작해 짧은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데, 마을의 역사는 중국의 現當代史를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 역사는 정치가 작용하는 역사이다. 다만, 그것은 내적인 모순이 충돌하여 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나아가는 발전의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권력이 작용하는 역사일 뿐이다. 그리고 마을은 이러한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이다. 필자는 류전원의 《우두머리》를 통해 촌민들이 처해져 있는 ‘마을’의 공간성을 살펴봄으로써 류전원과 신사실주의에 대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www.kci.go.kr

12) 여기서는 김태성 역, 《타푸-류전원대표소설선》에 수록된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2. 공간의 정치적 함의

정치와 권력은 특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며 이 공간을 객관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정치와 권력은 특정한 성원들의 바깥에서 존재하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성원들을 규율에 의해 통제하려고 한다. 정치의 우선 과제는 몇 세기 동안 언제나 새로운 공간을 정복하고 소유하는 것이었으며, 전 지구는 국가라는 형태의 정치적 공간들로 점점 뒤덮이게 되었다.¹³⁾ 근대적 국민국가는 자신의 권력이 미치는 특정한 지역을 다른 어느 시대의 국가체제보다 강하게 요구했다. 유럽의 도시국가나 중국의 봉건시대나 제국 시대의 국가 등에서 권력은 영토 전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지 못했다. 근대 국가는 강력하게 집중화된 중앙정부의 집권을 바탕으로 하나의 영토를 요구하며 그 안에서 권력을 통해 소속된 인민들을 전면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정치적 지배는 공간적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필요에 의해 공간을 적극적으로 경영하며, 이를 통해 성원들에게 그들의 이념을 교육하고 내면화시킴으로써 성원들을 그 안에 복속시킨다.

특히 근대 국가는 합리적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 발전했는데 무엇보다 이 체제의 안정성과 규칙성이 국가와 정치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이전의 자본주의 기업은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했다. 합리적 자본주의는 관료주의적 국가의 형성과 더불어서만 잘 발달할 수 있는, 공간적으로 규칙화된 시장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에 의해 재산권뿐 아니라 다른 필수적 제도들(특히 규칙화된 형태의 지폐교환)이 보장된다.¹⁴⁾ 근대로의 변화는 여기서 말한 규칙성과 안정성의 문제와 관련 있다. 국가와 사회는 모두 이러한 규칙성과 안정성을 구축하려고

13) Markus Schroer, 정인모·배정희 역, 《공간, 장소, 경계》(서울: 에코리브르, 2010), p.207.

14) Anthony Giddens, 황명주·정희태·권진현 역, 《사회구성론》(서울: 간디서원, 2012), p.225.

한다. 근대적 주체는 국민 혹은 인민으로서 정치·경제·사회 체제 내에서 규칙을 내면화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존재하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가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된 현대에서는 주체는 시장의 영향 하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 시장의 질서 속에서 그 규율과 법칙에 맞게 활동하지 않을 때, 인간은 그 체제 안에서 부재하게 되며,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근대 국가는 이와 같은 정치와 경제의 체제 안에서 성원들을 주체로 규정하고 묶는데 이것 자체가 공간적인 특성을 갖는다. 제도와 문화는 권력이 미치는 공간을 매개로 규율을 관철하고 있는 것이다. 기실 인간은 이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공간적으로 관철되는 체제 내에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주체로서는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근대국가는 강력한 중앙집중화된 권력·정치 체제 속에서 국민들을 권력 아래에 규정하고 복속시키려고 하며, 경제사회체제는 이와 더불어 개개 인간들을 균질화된 네트워크 속으로 편입시키려고 한다. 개별 성원들은 이러한 체제의 요구에 호응함으로써 근대 국가에서의 주체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기율적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권력은 개인의 외부에서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통치 행위를 통해서도 지배하면서 한편으로는 내면화를 통해서 지배한다. 누군가의 지배를 정당하다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당연한 듯이 흡수하고 이에 스스로 복종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사회의 모든 정치 및 통치적 시스템을 이용한다. 푸코는 감옥과 같은 장치를 탐색하면서 전체주의적 조직과 같은 특수한 것을 포함해 사회는 갖가지 제도를 공간과 연결시켰다. 제도는 공간을 통해 작동하며 그 안에서 특정한 기율은 일상이 되어 사람들의 삶에 스며든다. 감옥, 학교 등은 감시, 교정, 훈육의 장치이자 공간이며 이 안에 존재하는 이들은 기율적이며 관례화된 삶을 통하여 그것을 학습하고 내면화한다.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시스템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작동하면서 마치 숨 쉬는 공기처럼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 이 관계 속에서 성원으로서 우리는 특정한 틀에 갇히게 되며 나아가 이러한 상황과 상황을 야기하는 정치와 권력, 그리고 구조를 당연시 한다. 한편 문화

와 교육은 전자 보다는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다가온다. 사람들 일상의 생활에서 작용하는 데는 전자보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며 강력하다. 지배자 혹은 집권자들은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념을 설파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지배를 영속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배타적인 영토적 공간 내에서 유기적으로 조직된 체제 내에서 중앙은 갖가지 문화적 기제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관행으로 받아들이게 한다.¹⁵⁾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라는 표현 자체에 공간 관련 의미가 스며들어 있는데, 이는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형성된 세계 내적 존재자들과의 친숙함이 세계 내 존재를 구조 짓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의 진술에는 현존재의 공간성과 관련한 언급이 내포되어 있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완수된 형태에서의 실존이 공간화 된다는 것을 일컬을 뿐 아니라 공간 관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⁶⁾ 하이데거가 말한 세계 내에 존재하는 것은 주체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기보다 그가 처해 있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존재자가 기분에 휩쓸린다고 말했는데 이는 주어진 환경에 휩쓸려 그곳에 존재하게 되며, 존재하는 그곳으로부터 그에게 가해지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내-존재는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결국은 받아들이는 것에서 머물 수 있는 위협에 놓여 있다. 이처럼 근대는 주체를 체제와 장치를 통해 규정하며, 주체는 그 규율과 관습을 내면화함으로써 존재를 확인받는다. 그러한 지정과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간이며, 구체적으로는 영토를 바탕으로 한 국가이다.

15) 이는 기든스가 말한 관례화와 연관된다. 그는 관례화가 사회생활의 매일 활동에서 신뢰 또는 존재론적 안전의 느낌을 유지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심리적 기제라고 말했다. 개체는 사회라는 전체 구조에서의 삶을 통해 존재하는데, 사회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습관적으로 행함으로써 이 존재를 확인받는다. 관례화는 개체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로부터 안정을 얻는 심리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행위자의 성찰적 능력을 말한 기든스에 비추다면 이러한 관례화는 개체가 일방적으로 구조나 체제의 규율 등을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Anthony Giddens, 황명주·정희태·권진현 역, 《사회구성론》(서울: 간디서원, 2012), pp.27-28 참조.

16) Kathrin Busch, <공간, 예술, 파토스>, Stephan Günzel 편, 이기홍 역, 《토폴로지》(서울: 예코리브르, 2010), p.165.

“공간은 그것이 공간을 부여하는 한에서 공간이다.” 예술은 “괴상한 것”을 불러일으키고 “지금까지는 정상으로 보이던 것”을 뒤엎는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있던 곳과는 다른 곳에” 서게 된다.¹⁷⁾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체를 다른 곳에 위치시키려는 작업일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개체가 다른 곳에 위치하려는 작업일 수 있다. 전자가 근대적 주체처럼 지배를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이것을 파열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을 탐색하는 것은 후자의 작업에 보다 다가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을 규정함으로써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작업에 맞서 새롭게 열린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테 홀은 영화적 공간에 내재한 정치적 무의식을 파악하는 것¹⁸⁾에 대해 말했다. 늘 공간을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 영화의 감상과 비판에서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영화에서만 이야기의 아니다. 영화를 포함한 예술이 반영하고자 하는 현실의 공간은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공간이 아니다. 단단한 듯이 자리하고 있고, 몰가치한 객관적 공간인 듯이 보이지만, 현실의 권력과 이를 점유한 이들은 바로 공간을 통해 성원들을 통제하고 지배한다. 정치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한다. 공간을 파악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로부터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공간은 각각의 힘이 만나고 미치는 場이다. 이 각각의 힘들의 충돌이 곧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공간이 아닌 공간성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배경으로서의 장소를 정치적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다시 보는 것이며, 그것에서 더 나아가 그것이 갖고 있는 이면의 정치적 함의를 읽어내는 것이다.

17) Kathrin Busch, <공간, 예술, 파토스>, Stephan Günzel 편, 이기홍 역, 《토폴로지》(서울: 예코리브르, 2010), p.171.

18) Ute Holl, <틈새와 장(場)-영화에서의 공간지각>, Stephan Günzel 편, 이기홍 역, 《토폴로지》p.109.

3. 중국 현대의 국가, 정치, 공간

《우두머리》는 권력의 중심에서 있는 지도자의 이야기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주로 권력과 그것의 정점에 있는 두 인물 내지 세력의 다툼에서 다뤄져 왔다. 실제로 이 작품은 소략한 중국현대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야기는 마을의 탄생에서 시작해, 그곳을 통치하는 촌장의 교체를 다루고 있는데 이를 단순화시켜 바라본다면 근대적 국가의 탄생과 권력의 교체를 비유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작품 전체에서 공간은 배경처럼 빠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가 장소의 탄생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마을은 분명 이전에도 존재했겠지만, 그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촌장과 마을의 탄생부터이다. 화자가 말하는 지금의 사람들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촌장이 지정되고 이 촌장이 통치하는 마을이 탄생한 그 시점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마을이라는 공간의 탄생은 정치적 행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권력이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영토를 확보하며 내부의 안정성과 규칙성, 그리고 그것의 균질적 관철이 중시되는 근대국가는 영토 내에서 권력을 중심으로 하여 중심과 주변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지배한다. 권력의 중심은 주변을 지정하며 중심의 이념과 규칙을 그 안에 이식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마을의 외부에는 그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이미 어떤 정치적 권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권력은 마을을 지정하고 마을을 체제 내로 포괄한다. 중심으로서의 외부의 권력에서 본다면 마을은 주변부이다. 우두머리인 촌장은 대내적으로는 마을의 지배자이지만 외부 권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마을의 안과 밖을 연결하며 그것을 하나의 정치적 공간으로 만드는 매개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통해 이 공간에 작용하는 권력의 성격과 함께 그로 인해 규정되는 마을의 공간성을 읽어낼 수 있다.

중국에서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서구적 근대 국가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근대에 이르러 국가와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존재를 위해 각 부분은 곳곳에 하나의 생명체로서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각 단위는 존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중심을 통해서 유지된다. 청말의 정치학과 사회학 이론이 도입되었을 때 진화론과 유기체설이 함께 들어와 근대적 국가체제를 위한 개혁의 이론적 바탕의 되었는데 개혁의 추진세력들은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근대국가와 사회와 유사한 유기적 국가체제와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한편으로 우리는 중심과 주변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라는 관념이 사람들 사에서 점차 수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근대는 역시 지속적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규정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 서구와의 대결 속에서 스스로를 독립된 민족으로 인식하게 된 그들의 인식의 출발점에는 영토가 있었다. 침입으로부터 시작된 서구와의 만남과 경험은 바로 租借地와 같은 식민공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권력이 응축된 중앙은 하나의 단일한 권력 및 행정적 체계를 확보하고자 한다. 제 정치세력들이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중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공간은 늘 의미 있는 문제였다. 근대적 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의 정치 행위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었으며

기나긴 제국시대로 규정될 만큼¹⁹⁾ 오랜 중앙집권 국가의 전통에 있던 중국은 서구의 사회체제와 그 문화와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랜 '문화적 통치(文治)'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유가는 학문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법률을 통해 공적인 삶에서도, 중법제도를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도 규율로 작용해 왔다. 농업에 기반 한 제국은 개인으로부터 국가와 사회에 이르기까지 단일한 규율을 생활 속에서 체현하는 것을 중시했다. 그러나 사회와 세계와 연결되는 개인은 실은 균질적인 존재가 아닌 도덕적 수양을 쌓은 특정한 사람

19) 춘추전국시대를 종결한 秦 이후 淸 시기까지를 제국시대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Arif Dirlik, *Revolution and Histor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에서 중국의 역사분기에 대한 논의를 참조하라.

들이었다. 그것은 서구와는 다른 중국적 제국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외면적으로는 중앙집중화된 권력, 제도와 관습을 내면화시키는 문화적 통치, 개인과 전체의 통합의 지향과 같이 근대국가의 특징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지만 유기성과 총체성, 그리고 균질성이라는 면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근대를 지향하는 시야에서 전근대적이고 낙후되었으며 사적인 것으로 폄하되었다.

근대 이전의 중국의 문화적 통치가 결여하고 있던 것은 근대 사회와 같은 균질성이었다. 문치는 국가 내의 성원 모두와 모든 사물에 합리적이고 규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전통 사회에서도 통치는 국가의 법과 시스템을 빌어 관철되지만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모든 곳에서 관철되는 것은 아니었다. 국가 내 지역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관습과 문화의 저항을 받으며 오랜 시간을 들여 스며들었다. 권력의 통치는 문화와 관습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어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되며, 통치의 이념 또한 지역의 관습과 문화와의 타협 속에서 수용되었다. 그러나 지역과 단위의 문화적 자율성은 존재했다.

근대 중국이 근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와 권력은 이러한 지역과 자율성을 가능한 통제하려고 했다. 그 목적은 법적이고 공적인 것과 도덕적이고 사적인 것 모두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공간 속에 있는 인간 개체들은 공간을 규정하는 권력에 호명되어 주체로서 존재를 확인받았다. 국민당 지역에서는 國民이 되는 것이며, 공산당 통치 지역에서는 人民이, 일본 점령지에서는 臣民이 되어야 했다. 이것은 지역의 공적인 통치 행위를 통한 내면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왕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유기적 국가를 지향한 중국의 현대 정치세력들은 각자를 정당으로 조직하고 이 최종적 정치조직을 국가의 중심에 놓고자 했으며, 그 자리에서 각각 “국민”과 “인민”을 규정하고 그들을 지배하려 했다. 그들에 대한 지배는 정치경제적 제도와 함께 기술을 통해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근대 초기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개혁은 그러한 규칙과 제도의 구축을 통한 사회적 안정의 구축을 목표로 했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공간으로서 국가의 영토를 통해 권력이 관철되고

역으로 국가가 권력의 이념을 내면화하여 전체에 통합되는 주체를 통해 유지되는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공간과 강력하게 결합된 근대 정치, 근대 국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공간의 정치성 함의가 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근대로 넘어오면서 규정된 공간의 함의가 달라질 때 궁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말이 될 것이다.

4. 마을의 정치적 함의

대략 淸末로 추정할 수 있는 시점에 시작된 마을의 역사는 내부의 발전의 동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외부의 지정에 의해 시작되었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는 특정한 역사적 단계의 연속체이다. 각각의 단계에 내재하는 대립물들 간의 모순과 충돌은 다음 단계의 사회를 준비하고 이를 실현한다. 역사는 내부의 모순에 의한 자주적 발전의 길을 밟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으로부터 이 작품을 구성한다면, 마을의 봉건적 계급관계가 제시되고 그것에 따른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서 시작하든지 아니면 그 관계의 변화에서 시작하면서 공간에서 일어나는 권력의 변화가 마을의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키는 것으로 제시됐을 것이다. 그러나 마을은 외부의 누군지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해 지정됨으로써 탄생했다. 우리는 그 마을의 이전의 역사를 알 수 없으며, 이전의 권력이 어떠한지,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 수 없다. 다만 목도하게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 지정된 권력을 둘러싼 투쟁의 장으로 마을이 변모되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그 투쟁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시간은 흘러가고 내적인 갈등과 투쟁은 존재하지만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내부의 역사를 창출하는 인간 개인의 목적의식적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촌민들에게 그것은 갑자기 다가왔다. 개인은 그를 둘러싼 마을과 권력에 종속되지만 존재하지 않는 목적을

실현하는 인간도 아니었다. 그들은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 이들이 만들어 간 역사가 역사유물론에서 말하는 대립물의 통일로서 자주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역사는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마을이 외부의 위계적 권력과 체제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되었고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를 관습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마을과 촌장에게 부여된 정치적 권한을 통해 촌장의 권력의 성격을 우리는 볼 수 있다. 1대 촌장은 1908년 임명된다. 縣이나 鄉에서 公所의 취사원을 파견하여 田賦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취사원이 鍋餅을 얻어먹은 것을 계기로 촌장을 할 것을 권유한다. 새로이 임명된 촌장은 田租를 징수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이 징수가 강요는 아니지만 현 司法課로 송치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말단의 마을에서 이전의 관습과 같이 人情에 의한 징수가 허용되지만 이 역시 결국에는 공적인 행정의 영향력 아래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촌장은 마을에 나타나는 문제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일종의 사법권을 얻었다. 아울러 일정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이 있으며, 징세와 같은 행정을 대리 집행할 수 있는 행정권도 가지고 있다. 즉 우두머리에게는 마을의 모든 권력을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근대적일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한 마을 외부의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력은 공적인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다. 촌장은 마을을 지배하고 통치할 권한은 넘겨받았지만, 그 권한의 위임은 외부의 공식적이고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정자와 피정자의 사적인 사건과 비합리적 관습에 따라 이루어진다. 촌장은 마을의 통치자이지만 통치는 분리되어 있으며 그가 마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전근대적 관습일 뿐이었다. 그는 마을을 통치함에 있어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암묵적인 관습과 지역의 상식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처분을 집행했다. 살인, 약탈 등 중범죄나 관습에 의한 통치를 넘어서는 것은 縣의 사법과로 넘어간다.

촌장의 권력은 마을에서 전근대적인 관습과 문화에 국한되어 있었다. 외부는 마을과 촌장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권력의 성격은 이분화 되었

는데 이는 마을의 내외부의 공간적 성격과 연관된 것이었다. 중국 고유의 전통적 관습과 문화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격하되었는데, 작품에서 청말에 지명되어 탄생된 마을은 바로 이러한 전근대적 관습에 의해 통치되는 공간이 되었다. 근대 국가로의 지향에서 전통 문화와 관습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그리고 사적인 것으로 격하되었다. 대신 서구로부터 공과私の 질서를 들여와 도덕과 기준을 새로이 정립하려고 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근대적인 새로운 제도와 관습, 그리고 문화를 확립하려 했다. 합법적이고 공적인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부의 몫이다. 외부는 '지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을 외부에서 통제하고 지배한다. 그것은 분명 외적으로는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특수한 시간과 사건을 제외하고는 마을 내적으로는 부재한다.

통치는 구분되었다. 마을의 권력은 공적인 일들을 다루지 않으며 사적인 인민의 생활의 영역을 다룬다. 인민의 삶의 갈등은 생활 방면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단죄가 내려진다. 국가 차원의 법은 그들 밖에 있다. 촌장이 다루는 것은 남녀 간의 부정이나 사소한 시비 등이 주다. 그에 대한 처벌도 우물의 폐쇄나 烙印제도와 같은 관습적이다. 게다가 이러한 처분은 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고 족장회의와 같은 관습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외부의 권력과 연결된 채 마을은 독립적으로 관습에 의해 유지된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경과함에도 변하지 않는다. 권력은 엄밀히 말해 마을 내의 이러한 기율과 체제를 부정할 적이 없으며 그것을 마을에 용인함으로써 마을을 간접적으로 지배했다.

2대 촌장은 1931년에 임명된다. 여전히 선(申) 씨 네가 촌장의 자리를 잡으나 2년 만에 물러나고 3대 촌장은 보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지주인 라오쥙(老宗)으로 바뀐다. 촌정(村丁)도 보정(保丁)이 되고 여전히 라오루(老路)의 아들 샤오루(小路)가 이어받는다. 그러나 명칭상의 변화는 문화와 관습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한 것은 아니었다. 촌장을 포함하는 마을 전체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쥙 씨 집안과 선 씨 집안의 관계와 충돌일 뿐이다. 그런데

이 충돌은 역사를 추동하는 계급 갈등과 같은 사회의 내적인 동력도 아니다. 권력을 권 쫑 씨 집안 역시 선 씨 집안의 통치 하에 있던 때와 마찬가지로 관습법에 따라 판결하고 처벌한다. 그들의 권력과 통치의 성격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해방 이전의 마을의 상황은 중국 현대사와 중국 사회의 성격을 보여준다. 중심을 벗어난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관습이었으며 관습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 그들은 아무런 판단과 행동의 권한이 없다. 오히려 외부의 권력과의 관계에 따라 마을은 그들 나름의 관습을 기준으로 유지되던 공동체의 일시적 붕괴를 경험한다. 아마도 촌장이 지명되기 전, 마을의 우두머리도 없던 그 시절에는 암묵적인 관습과 문화를 통해 유지되어 왔을 것이다. 그러나 마을은 탄생한 후 주어졌던 권력이 일시적으로 부재하게 될 때 위기 상황에 처한다. 무정부 상태의 마을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서도 그 공백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권력과 그들 사이의 거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마을은 정치적으로 전기를 맞이한다. 해방군이 마을을 해방시킨 것이다. 본래는 자주적 역사로서 그 목적이 실현되어야 했을 이 공간은 내적인 모순의 폭발과 해소를 겪으며 스스로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어야 했을 것이다. 즉,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역사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재하는 권력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을 뿐 마을의 공간성, 그 정치적 함의는 변하지 않았다. 마을에게 해방은 새로운 중앙권력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일 뿐이었다. 여전히 마을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외부는 다시 마을의 권력을 지정하고 그들을 통해 대리 통치를 하는 원래의 방식을 유지한다. 다시금 마을의 지도자는 중앙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외할아버지 네 외삼촌은 리샤오하이가 죽자 해방군에 투항했다. 해방이 되자 이제 支書라고 이름이 바뀐 마을의 우두머리가 된다. 마을을 다스리는 이들의 이름이 바뀌어도 결국 그들은 우두머리라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다. 해방 이전에도 촌장의 명칭이 바뀌고 촌장이 바뀌어도 마을과 그 정치적 의미가 변하지 않았듯이 해방 후의 변화도 실질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마을이 포함된 전체도

‘實’이 아닌 ‘名’의 변화만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부터 영향 받는 마을 역시 다른 것이 없었던 것이다. 중앙으로부터 결정되고 중앙의 권력이 마을에까지 이어지는 그 체제가 같으며, 그것을 대하는 문화적 태도와 방법이 같았다. 하나의 정치세력이 국가를 장악한 순간, 국가는 이제 전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가 되어 버렸다.

支書의 권력과 통치는 생활과 문화의 영역에 미친다. 그들의 회의주제는 늘 생활의 사건이다. 그러나 해결되는 것이 없다. 사람들은 “저 좃같은 라오쑤(老孫) 새끼, 지서가 되어가지고 사건 하나 제대로 판결을 못하냐”라 말한다. 결국 이들은 조상의 방법을 부활시킨다. 문화적으로 그들은 소위 ‘진보’하지 못하며 후퇴한다. 우물폐쇄와 낙인이 그들의 손에 의해 부활된다. 낙인은 알록달록한 모양의 촌민자치를 상징한다. 그것은 그저 우연적이며 내면화된 관습을 회화화한 것이다. 질서가 없는 얼룩덜룩한 모양은 권력자들의 인민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과 통치의 난맥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순간조차 촌민 자치는 촌민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민은 통치하기 어려운 존재로서 전근대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자치 역시 타인으로부터 지정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권력을 점할 수 있는 자들의 투쟁이 어떤 목적 의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힘에 대한 본능적 지향에서 나온 것이듯 마을의 자치 역시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과 실천이 아닌 그들의 본성에서 나오는 반응일 뿐이다. 이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는 것은 중앙 권력의 指定과 무력함이 었다. ‘자치’라는 주체의 가장 자율적일 수 있는 행위는 회화화되었고 여기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때때로 모습을 보이는 권력이다.

당대에도 마을의 권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중범죄와 같이 마을의 사법권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무엇보다 촌장을 권력에 앉히는 더 큰 권력도 마을 외부에 있다. 해방 전의 무정부적 상태를 결정한 것도 결국은 외부였으며 해방 후에도 동일했다. 해방 후 권력이 정해지는 방법 역시 이전과 같았다. 최초의 촌장이 鍋餅을 대접한 일로 그리되었듯, 章 씨 공작원이 라오쑤에게 거친 식사를 대접받고는 그에게 反지주 투쟁을 독려하고 입당을 권유한다. “밥 동냥하는

사람이 지서가 되어야 앞으로 동양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다.” 이는 권력이 표면적으로는 밥 동양하는 이, 즉 하층 인민에게 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을 내에 계급이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결정권은 중앙의 권력에게 있다. 여기서 계급갈등과 계급투쟁은 해방 전에는 마을에서 드러나지 않던 것이었다. 해방 전 마을의 역사는 앞에서 보았 듯 계급갈등이기 보다는 마을의 권력을 사이에 둔 집안의 싸움이었다. 해방 후에 갑자기 등장하는 계급투쟁은 실제 마을의 불평등한 계급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역시 외부로부터 규정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실질은 권력의 찬탈을 둘러싼 본능적 투쟁이었다. 해방 전 후에 역사적 사실은 모습을 보이지만 자주적 역사의 동력인 계급투쟁은 관념적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이것을 규정한 것은 공산당이였다. 공산당은 따라야 하는 하나의 말씀이 되었다. 해방 전의 외부는 추측만 할 뿐 불분명하다. 국민정부인지 군벌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해방 후 외부의 권력은 표면적으로는 누구인지 분명해졌다. 그러나 외부의 권력자로서의 공산당도 실제로는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마을 외부에 존재하는 절대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으로만 존재한다. 이것은 라오 쑤이 늘 ‘장서기 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서기 님’ 역시 더 큰 그 위의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이다. 해방 이전에도 누군가에 의해 지명되었으나 촌의 자치력이 관행적으로 유지되었다면, 이제는 자치 역시 외부로부터 영향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맞이한 당대에서 혁명의 지속을 외쳤던 이들은 생활과 문화에서 삶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다. 互助組, 合作社, 人民公社 등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그는 선 것도 아니고 앓은 것도 아닌 우유부단한 통치를 행한다.

그의 이러한 우유부단함은 전근대적인 문화에 기인한 탓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판단하고 지정하는 외부의 힘이다. 마을과 촌민의 전근대적 관습이 그러한 지정에 의해 유지되었듯이 사회적 갈등 역시 외부로부터 지정된 것이다. 우유부단한 통치, 통치하기 어려운 촌민이 나타난 원인은 이와 멀리 있지 않다. 지역의 무질서와 부정부상태는 마을을 둘러싼 권력과 시스템으로부터 자

유료울 수 없었다. 서방질, 계집질, 도둑 등은 본래 호조조, 합작사, 인민공사와 같은 공동체 내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이러한 공동체들을 따라서 다시 발전했다. 결국 마을을 둘러싼 객관적 상황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는 또 다른 국가에 의해 대체되었고, 이러한 것을 문화적으로 돌파하고자 했던 실천과 투쟁도 궁극적으로는 국가 내에서 권력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던 것이다.

5. 공간-관계의 새로운 정의

혁명 후의 국가에서 혁명을 이끌었던 이들은 권력을 장악하는데,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이 싸워왔던 적에게 동조하는 순간이 된다. 혁명의 성공은 국가의 해체와 같은 전혀 다른 정치적 길로 이어지지 않으며 새로운 국가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낸 순간, 그것을 이룩한 세력들은 그들이 싸웠던 적대자의 것을 그대로 자신들의 것으로 들여온다. 사회주의국가의 수립으로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는 변화했지만 국가의 틀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에서 마주해야 했던 현실, 즉 장치로서의 국가가 여전히 건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촌민들은 권력에 규정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마을에 처해 있다. 즉, 마을의 정치적 성격으로부터 영향 받으며 이것을 내면화한다. 그럼으로써 그 주체는 사회 안에서 그 안정과 유지에 나선다. 인민은 지식을 배워야 할 대상이지만, 늘 중앙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었다. 권력은 공간 밖에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 공간을 규정한다. 권력의 지정에 의해 마을은 탄생하며 거주민들은 오로지 관습의 영역에서만 일정한 판단과 행위의 자율성을 부여받을 뿐이었다. 그 자체가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내면화하지만 내면화한 관습은 사실 그들이 만들어 온 것이었

다. 지배의 수단으로서 문화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문화가 공간 내에서 긴장 속에서 시간을 따라 흘러갈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저항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이들은 없었다. 권력과 긴장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서구가 그들의 근대적 국가와 사회체제로부터 일탈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면, 의미적으로 다르지만 기실 그러한 강력한 유기적 체제의 확장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일탈의 가능성은 중앙의 권력을 장악한 자들에 의해 조정되는 것일 뿐이었다. 문화적 후퇴는 서구와는 다른 새로운 근대의 가능성이 아니라, 중국적 특징에서의 유기체의 강화에 헌신할 뿐이었다. 오히려 이러한 낡은 문화적 틀을 통해 사람들은 권력과 체제를 내면화하고 관계화한다. 이제 드러나는 것은 체제 속에서 그것을 내면화하는 인간의 나약함이다. 인간은 나약하다 못해 사악하기까지 하다. 외부 권력의 무력함과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의 붕괴나 혼란 앞에서 정치적 공간이 마을에 머무는 촌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 체제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중심에 다가선 이들은 권력의 항배에서 이러 저리 굴러갈 뿐이다. 역사적으로 체제와 그것과 연결된 권력은 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화적으로 후퇴하며 그것은 결국 체제의 강화로 흐를 뿐이다.

계몽의 관점에서라면 작품은 권력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치열한 투쟁과 이에 굴복하는 촌민들의 전근대적 관습과 세속적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을 폭로, 비판하고 이를 통해 나약한 국민성을 개조해야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것이다. 그러나 계몽이 전근대에 대해 새로운 도덕과 문명을 도입하여 서구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의 소설에서 류전윈의 소설에서 전근대적 권력의식과 촌민으로 대변되는 인민의 우매하고 나약하며 욕망 앞에서 사악하기까지 한 본성을 폭로하는 것이 신사실주의의 문학적 실천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우두머리》에서 마을의 공간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에 개인들의 전근대적 의식과 인성의 변화만으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답이 아니다. 오히려 마을의 공간성을, 즉 정

치적 관계들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말해야 한다. 개체로서 주체는 일방의 규정에 의해 체제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내에서 관계를 통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개체와 구조, 개체와 장치의 관계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간'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관계가 곧 정치라는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든스는 '개인'이 성찰적 행위자임을 보여주는 개념들을 개발하는 데 몰두했다. 그가 말한 성찰성은 자리매김 및 공-현진과 연결되는 것이었다.²⁰⁾ 구조주의나 기능주의는 인간 외부의 제약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은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그 영향 하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방법도 구조주의적 방법도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으며 이로부터의 해결책은 요원해진다. 구조주의 하에서 개인의 노력은 불필요한 것이 되거나 개인주의 하에서 알 수 없는 경험에 의해 인간의 행위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기든스가 말한 성찰적 개인은 유일한 행위자로서의 개인이 그의 유한성이라는 실존적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그 내부의 규율로부터 규정되는 사회와 국가로부터의 일탈과 관련되며 하나의 중심을 통해서 규정되는 과거의 정치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권력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국가에서는 공간 내에서 구조적 장치를 통해 규율을 내면화시킴으로써 개인을 지배한다. 그 안에서 존재를 인정받아야 하는 이들은 이를 내면화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은 이러한 공간의 정치학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개체가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권력에 의한 일방적 지정, 즉 일방의 정치가 아닌 상호관계 속에서 자리매김하는 것에서 찾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을 논하며 에릭 홉스봄은 마르크스주의를 인간주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들의 비록 인간의 합목적적인 활동이 만들어가는 것이 역사이지만 여기서 방점을 합목적이지 아닌 인간에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즉, 인간주의적이라는 것은 정치적 결정론이 아닌 인간의 판단과 행위에 의해

20) Anthony Giddens, 황명주·정희태·권진현 역, 《사회구성론》(서울: 간디서원, 2012), p.235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낡은 것의 묘혈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또는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파여야²¹⁾ 하는 것이다.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분명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공간은 밖에서 일방적으로 인간을 규정하려 하겠지만 인간은 외부와 관계하면서 자율적이고자 한다. 존재로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개체의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합목적적인 의식을 따르는 것에서 그의 자유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대등하게 맞서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 그를 보다 자유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권력과 공간이 유지하고 있는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출로를 만드는 것, 그 역사 자체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 하는 인간에게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을의 전근대성은 뿌리 깊은 전근대적 문화와 관습에 기인하는 것만이 아니며 전체 사회 체제와 권력의 전근대성에서도 비롯된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계몽적 관점에서 우매한 인민의 전근대성을 폭로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계몽된 촌민, 인민이 있다한들 그들이 전근대성을 유지하는 구조와 공간 속에서 존재한다면 상황은 반복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국가와 권력이 관여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과 같은 공간은 중앙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규정된다. 이 마을은 촌장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 작품의 현재적 시점에 이르는 시간까지 이러한 공간적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우두머리만 바뀌었다. 마을이라는 공간과 촌민들, 촌장과 촌민들, 촌민들 사이 등등의 관계는 새롭게 규정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촌민은 그 처음부터 사실 통치하기 어려운 존재들이었다. 중앙이 마을의 공간을 공과 구분되는 사적이고 전근대적인 관습의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이 이러한 의도가 촌민에게 관례화 되고 내면화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통치하기 힘든 촌민들, 우두머리로서 촌장과 묘한 긴장을 유지하는 촌민들이

21) Eric Hobsbawm, 이경일 역,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서울: 까치, 2012), p.128.

전근대적 관습에 의지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전근대적 우매함과 낙후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정하려고 하는 세력과의 긴장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되어 왔던 것이다. 이후의 마을의 향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는 외부이든, 마을이든, 마을의 우두머리이든, 그리고 촌민이든 이들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지 않는 한, 즉 새로운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한 마을은 여전히 동일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것이다. 우매한 인성의 폭로만으로는 출구를 찾을 수 없다.

6. 나가며

전근대적 관습과 우매한 민중이라는 계몽적 관점에서 신사실주의를 바라본다면 결국은 우매한 국민성에 대한 비판과 계도에서 머물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인성의 교정은 이미 문혁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해진 것이었으며, 신시기 이후 일어난 계몽의 부활에서도 진행된 것이었다. 어쩌면 보다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제기되는 개인적 좌절과 이에 따른 낙담하고 우매한 인성 이전에 그것을 야기하는 보다 거대한 구조와 정치에 대한 폭로일 수 있다. 전근대적 관습과 의식의 폭로와 비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이와 함께 권력의 이면도 살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성의 문제, 새로운 기준과 도덕의 문제와 함께 이를 규정하려고 하는 외부의 권력의 문제, 그리고 이것 사이의 긴장과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관계로서 공간과 권력을 바라보고 이로부터 새로운 사회와 국가의 출로를 모색할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은 아직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신사실주의 전체를 본 것도 아니며 그의 작품에서도 일부만을 살핀 것이며 그래서 논문의 결론에서도 여전히 미해결의 가설로 남아 있다. 류전원과 신사실주의로부터 새로운 해석과 실천의 가능성을 찾는 작업은 이후의 확장된

연구를 통해 더 심화시키고자 한다.

< 參考文獻 >

- 梁啓超(1936), 朴敏鎬, 《류전윈(劉震雲) 도시 소설의 인물형상 연구: 현대 도시인의 '욕망'과 '좌절' 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朴敏鎬, <류전윈(劉震雲)의 《핸드폰(手機)》에 나타난 '장치', '주체', 그리고 '욕망'의 관계>, 《중국어문학논집》제66호, 2011
- 李永求, 朴敏鎬, <이상 상실의 시대, 일상화·세속화 주체의 발전: 류전윈(劉震雲) 신사실주의 소설 속 '샤오린(小林)' 인물형상의 경우>, 《中國學研究》제53집, 2010
- 李永求, 朴敏鎬, <류전윈 劉震雲 신사실주의 소설에 나타난 아이러니 irony 연구: '직장 소설 職場小說'과 '공직사회소설 관계소설'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제39호, 2010
- 朴敏鎬, <과국의 형상학: 1980년대 후반 중국소설에 나타난 '인간의 죽음': 팡팡(方方), <풍경(風景)>, 츠리(池莉), <번뇌인생(煩惱人生)>, 류전윈, <단위(單位)> 등 신사실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韓中言語文化研究》제24집, 2010
- 馮慶華, 《劉震雲小說論》, 중국 南京大學博士論文, 2013
- 李海燕, <論劉震雲前中期小說中的權力批判意識>, 《安徽文學》第6期, 2008
- 董文桃, 陳純潔, <論劉震雲官場系列小說的“權力”特徵>, 《汕頭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25卷第5期, 2009
- 劉漪瀾, 陳春風, <劉震雲小說中權力文化的批判>, 《短篇小說》第19期, 2009
- 段廷良, 郭偉, <略論劉震雲小說的權力批判意識>, 《開封教育學院學報》제22권제4기, 2002
- 齊志偉, <虛無荒誕下的自我存在>, 《文學界》第10期, 2012
- 김시준, 《중국 당대문학사》, 서울: 소명출판, 2005
- 홍석표, 《중국현대문학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9
- 許紀霖 외 저, 이주노 외 역, 《계몽의 자아와해》,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 Markus Schroer, 정인모·배정희 역, 《공간, 장소, 경계》, 서울: 에코리브르, 2010
- Anthony Giddens, 황명주·정희태·권진현 역, 《사회구성론》, 서울: 간디서원, 2012
- Stephan Günzel 편, 이기홍 역, 《토폴로지》, 서울: 에코리브르, 2010

Arif Dirlik, Revolution and Histor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Eric Hobsbawm, 이경일 역,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서울: 까치, 2012

< Abstract >

Liu Zhen Yun(劉震雲) provided power or history as external factors which determine and specify thought and action of human beings and searched for human nature in response to those factors. Lots of authors and their works claimed that he revealed not only pre-modern sense of power but weak natures of human beings who tried to realize their desire by the acquisition of power as well, and showed the possibility of renovation of nationality. But actually space which was assigned politically led to and maintained pre-modernity. The village and its headman characteristically unchanged through modern and contemporary age make us find these facts. Ultimately, we have to reestablish relation between space and individual in order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

Key words: Liu Zhen Yun, new realism, enlightenment, space, politics, power, pre-modernity, culture, practice, headman, renovation, individual, rela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12. 29.	2015. 1. 20.	2015. 2. 9.	2015. 2. 11.	2015. 2. 28.